

SPECIAL FEA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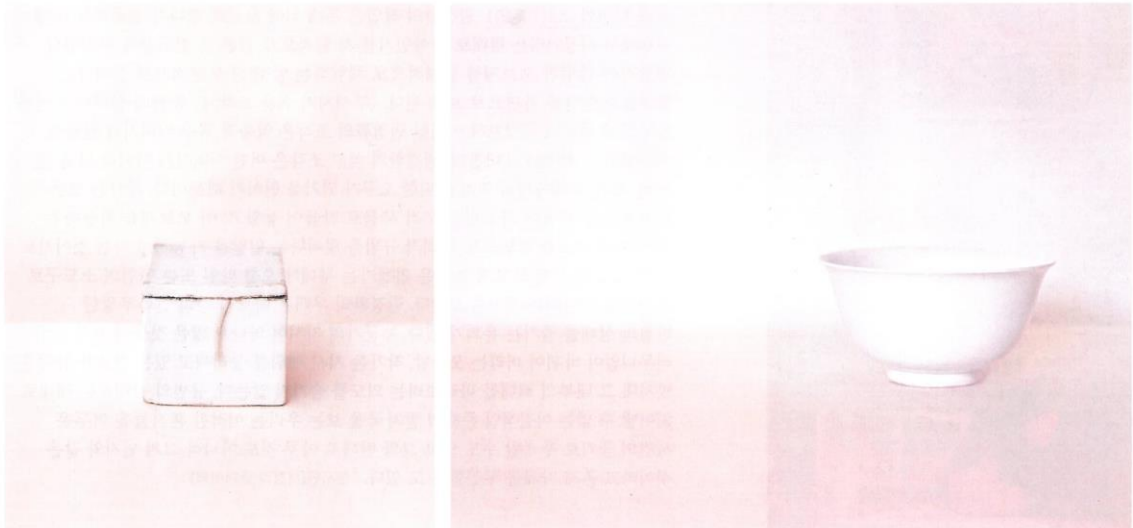
Korean Artists Today 100+16

2016년 새해가 밝았다. Art는 1999년 창간 이후 지난 17년간 한국미술의 역동적인 흐름과 궤를 함께 해 왔다. 20세기 미술의 유산을 남김없이 기록하는 동시에 21세기 미술의 새로운 흐름을 발 빠르게 포착하며 한국미술의 '안과 밖'을 중횡무진해 왔다. 이제 Art는 새로운 프로젝트로 2016년의 문을 연다. 이번 신년호를 '한국 현대미술가 아카이브' 특별호로 기획, 작가들의 활약상을 토대로 지난해의 '미술 지형도'를 그려보는 것이다. 'Korean Artists Today 100+16'은 2015년 한 해 동안 활동이 두드러졌던 한국 작가 116명을 선정, 작가의 최신 약력 및 작품 화보를 정리한다. 여기에 주요 평론의 일부를 세심히 발췌, 소개해 작품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를 돕는다. 그리고 이 발췌문을 토대로 편집부에서 뽑아낸 작품의 '키워드'를 글머리에 심는다. 특별호 제목의 숫자 '100+16'은 20세기의 '100년'에 21세기의 '16년'을 더한 것이다. 본지가 주목하는 '20세기와 21세기의 만남'을 상징한다. 선정 작가의 범위는 2015년에 국내외에서 개인전을 개최한 작가부터 주요 미술상을 수상한 작가로 정했다. 또한 작가들의 개인전 장소가 서울에만 국한되지 않도록, 국내 지역 미술관 및 전시공간부터 해외에 이르기까지 작가들의 족적을 세심히 돌아봄으로써 지역별 균형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그리고 원로작가부터 중견, 중진작가를 주축으로 하되, 그동안 미술계에서 맹활약한 30대 중후반 이상의 작가까지 고른 연령 기준을 세웠다. 물론 Art는 30대 이하 신진작가들의 활약에도 늘 주목하고 있다. 향후 별도의 기획을 통해 신진작가들을 한자리에 소개하는 '마당'을 따로 마련할 계획이다. 해가 거듭될수록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잡지의 역할과 기능도 변한다. 누구나 온라인에서 정보를 자유자재로 얻을 수 있고, 종이 잡지에 대한 열광이 줄어들고 있는 지금, Art는 잡지의 새로운 길을 모색한다. 온라인의 막대한 정보량과 빠른 속도에 대응할 수 있는 종이매체만의 느리고 깊은 호흡을 늘 고민한다. 지면 위에 지나간 역사를 각인하고, 다가올 미래를 위한 자료가 되는 것. 그 첫 번째 시도로서 앞으로 Art는 매해 신년호를 이 '한국 현대미술가 아카이브'로 꾸릴 것이다. 매년 이 특별호가 쌓여갈수록 우리는 작가들의 왕성한 활동으로 그려 낸 한 해의 미술지형도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독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바란다.

구본창

Koo Bohnchang / b. 1953

연세대 경영학과 및 함부르크 조형미술대학 사진디자인 전공 **Solo Exhibitions** 이도갤러리(2015),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2014), 국제갤러리(2011), 필라델피아미술관(2010) 등 **Group Exhibitions** 《한국건축예찬-명의 깨달음》(삼성미술관 리움 2015), 《가치말의 거짓말 : 사진에 관하여》(토탈미술관 2015), 《코리아 뷰타: 두 개의 자연》(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2014) 등 **Awards** 동강사진상(2014), 강원다큐멘터리 작가상(2003), 이명동사진상(2000)
Current Post 경일대 사진영상학부 교수 **Address** www.bckoo.com



왼쪽 · 〈Vessel (JM 08)〉
 C-프린트 63×50cm
 2006
 오른쪽 · 〈Vessel (HR 02-1)〉
 C-프린트 50×63cm
 2006

백자의 '상상적 귀향' 구본창의 백자 여행은 이렇게 시작된다. "1980년대 말 잡지에서 서양인 할머니가 큼직한 달항아리 옆에 앉아 있는 사진을 본 적이 있다. 그때 낯선 외국인과 함께 먼 타국에 있던 백자의 서글픔은 나의 가슴 깊은 곳을 움직였다. 세월이 흐른 뒤 교토를 여행하는 중에 일본 잡지에 소개된 조선백자를 보고 오래 전 기억을 다시 떠올렸다. 그들을 구원하려는 열망. 이것이 작업의 결정적인 시발점이다." 귀향은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의지, 돌아갈 수 있게 하려는 열망에 빠진 자들의 몫이다. 구본창은 백자의 '상상적 귀향'을 연출한다. 잊힌 역사(문화), 즉 조선의 정신과 예술혼을 구원하는 모습이자 잃어버린 백자의 아름다움 및 기품을 오늘의 시간에서 되찾게 하는 부활의 모습이다. 그가 다루고, 만지고, 눈길을 건넨 것 중에 시간 아닌 것이 없다. 구본창의 백자는 외형적 형태보다 내면에 흐르는 깊고 단아한 감성으로 홀렸다. 다른 나라 박물관에서 제 모습을 잃은 백자에게 최적의 형식미란 무의미하다. 백자들이 구본창만의 미감으로 보인 것도 그 때문이다. 투명한 프레임 속에서 밝아지고 어두워지고, 커지고 작아지고, 물러서고 다가서고, 높아지고 낮아지고, 깊어지고 얕아지는 백자들의 모습에서 우리 문화의 정체성, 자긍심, 생명력을 보게 된다. 백자는 결국 돌아오지 못한 채 어제의 시간 속에 여전히 그대로 있다. 그런 백자에게 우리가 건네는 시선은 무엇인가. 그것은 민족의 숨결이다. 백자가 영원히 숨 쉬게 하는 일은 숨결을 불어넣는 일이다. 이것만으로도 구본창이 세계 박물관에 흠어진 우리의 백자들을 찾아 떠난 여행의 의미는 충분히 보인다. / 진동선(사진평론가)